

제 46 호

연중제 28 주일
(강림 후 18)

1973. 10. 14

순정이

발행인 김 영 일
인쇄인 범 석 규
주 간 조 성 호
편 집 한 상 갑

※ 전주 6개본당 사도회장단※

【전 임 회장단】

【신 임 회장단】



김 종 순 회장



중앙 이복석 회장



이 태 영 회장



노승동 조해형 회장



송 영 기 회장



덕진 김종환 회장

※ 수고하셨습니다 ※

유 임

조 성 호 회장



육 낙 철 회장



송 영 선 회장



복자 조 성 호 회장



서학동 최 상 의 회장



전동 송재진 회장

※ 수고하시겠습니다 ※

※이주일의 미사※

□**입당송** 주께서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여 감당할 자 누구오리까. 이스라엘의 하느님, 용서하심이 당신께 있나이다.

□**제1독서** (저서 7; 7-11, 경향잡지 10월호 P. 39) 지혜에 비하면 재물은 아무것도 아니다.

□**창계송** ◎주여 넘치도록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 한성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당신이 하신 일을 종들에게 보이시고 당신의 영광을 그 자손에게 보이소서. 하느님 우리 주의 어지심이 우리 위에 내리옵소서. 우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주소서. 우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주소서. ◎

□**제2독서** (히브리 4; 12-13, 성서 P. 501)

하느님의 말씀은 마음 속 생각과 의도를 드러낸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니, 알렐루야.

□**복음** (마르코 10; 17-30, 성서 P. 100)

가진 것 전부 팔고 나를 따라라.

□**신자들의 기도**

1.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신 주여, 지금은 전교의 달입니다. 항상 전교에 힘쓰고 관심을 가져야 하겠지만 특히 이 10월 중에는 더욱 관심을 갖게 하시고 일선전교 사들에게는 더 많은 용기를 불어 넣어 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2. 교회의 힘이신 성신이며, 금년에 사도회의 책임을 맡은 이들에게 지혜의 풍요함과 육신의 건강을 주소서◎

3. 주여, 지금은 독서의 가절입니다. 이 좋은 때, 우리 모두 당신의 가르침에 눈물리게 하소서. 특히 젊은이 들을 불량서적의 해독으로 부터 지켜주소서◎

✦ 주여 비오니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쓰시어 다름이 있는 곳에 용서를 심는 자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영성체송** 그리스도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 분 같이 리니, 그의 참 모습을 뵈오리라.

※ 이 주간의 성경 ※

15(월) 독서 (로 마 1; 1-7, 성서 P.337)

복음 (루 가 11; 29-32, 성서 P.160)

16(화) 독서 (로 마 1; 16-25, 성서 P.338)

복음 (루 가 11; 37-41, 성서 P.160)

17(수) 독서 (로 마 2; 1-11, 성서 P.339)

복음 (루 가 11; 42-46, 성서 P.161)

18(목) ※ 성 루가 복음 사가
독서 (디모테오후서 4; 9-17, 성서 P.489)

복음 (루 가 10; 1-9, 성서 P.154)

19(금) 독서 (로 마 4; 1-8, 성서 P.344)

복음 (루 가 12; 1-7, 성서 P.162)

20(토) 독서 (로 마 4; 13.16-18, 성서 P.345)

복음 (루 가 12; 8-12, 성서 P.162)

로 사 리 오 성 월 을 맞 으 면 서



김 재 덕 주교
(천주교 전주 교구 교구장)

십과 기도의 열성도 함께 식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모든 신자들이 성모 마리아와 가까이 있을 때 비로소 예수님과도 가까이 지낼 수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역시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께로」라는 말은 진리를 담은 불멸의 격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마침 우리는 「화해의 성년」을 지내고 있습니다.

화해의 성년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하느님과 나사이, 그리고 나와 이웃 사이에 진정한 화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들의 회개와 내적 쇄신을 이룩하는 때입니다. 우리의 생활태도를 자기 중심에서부터 하느님과 이웃 중심으로 바꾸는 즉, 우리의 생활이나 아닌 예수님의 생활다워지도록 쇄신을 이룩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10월의 매괴 성월을 맞은 우리는 성모마리아의 생애를 더욱 깊이 묵상하며 묵주의 기도를 열심히 바쳐야만 하겠읍니다. 화해의 성년이 원하는 취지를 가장 잘 알으시고 실천하신 분이 바로 성모 마리아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과 인간이 바로 성모 마리아 안에서 위격적 결합(Unio hypostatica)을 보았으니 이보다 더한 화해의 무-드가 어디 있겠으며, 또 하느님께 대한 믿음과 이웃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에 있어 성모 마리아 보다 더 치열하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듯이 「당신을 낳아서 걸렸기 때문에 복된 것이 아니고 믿고 실천했기 때문에 진정으로 복된 자가 되신분」이 바로 성모 마리아입니다.

성모님이야말로 오로지 일생을 예수님 위주로 살으신 분으로서 이 「화해의 성년」에 우리 모두가 특별히 모셔야 할 가장 훌륭한 「본보기」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나는 교우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번 매괴성월에는 그 어느 때 보다도 더욱 묵주기도를 열심히 바치면서 성모님의 생애를 깊이 묵상하고 거기서 깨달은 바를 실천에 옮기도록 노력하자고 권고하는 바입니다.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께로」

이는 옛부터 우리 교회안에 전해 오는 아름다운 격언입니다. 공의회의 표현을 빌린다면 「사람들에게 대한 마리아의 모성적 역할은 그리스도의 유일(唯一) 중재성을 흐리게 하거나 감소 시키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며…… 따라서 믿는 이들과 그리스도와의 직접 결합을 절대로 방해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도와 주는 것이다.」(교회헌장 60조)라고 이를 부연할수 있겠읍니다.

사실 우리 선조들은 이러한 교회의 정통적 가르침을 따라 성모 마리아를 공경하는 데에 많은 노력과 열성을 바쳤읍니다. 신자라면 누구나 할것없이 묵주기도를 매일 즐겨 바쳤고, 또 그래야만 정상적인 신심을 가진 신자로 자처했으며 또한 인정을 받았읍니다.

몇해 전까지만 해도 매우 아름다운 풍경으로서 신자들이 모인 집회에서는 반드시 묵주기도를 함께 바치는 것이 거의 통례처럼 되어 있었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성모님께 대한 신심과 묵주기도에 대한 열성이 적어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는 아예 모든 신심행위와 기도를 거의 다 소홀리 하는 것 같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나 성모님께 대한 신심과 묵주기도에 대한 열성이 이렇게 식어짐과 동시에 예수님께 대한 신

독일 직수입 전 울크호 전주에



● 문의처 전화 ㉠ 7692 임 미카엘 (한전) 애견

전라 종합 전자 상사

T.V. 싺통. 다목적 전기 술 등

오랜만에 고향을 찾아 인사드립니다.

달로 새로워 지는 오늘날, 교향 여러분의 생활을 더욱 윤택하고 실용적으로 꾸미시는 일에 도움을 드리고자 조그맣게 전라 종합 전자 상사를 차려 문을 열었습니다.

지나시는 길에 잠깐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성모병원 옆(전 영화예식장 자리)

전화 ㉠ 2757 조 윤희(베드르) 올림

□ 성년 특집 □



괜찮지 않아요?

지난 월요일 대전에서 첫 고속버스를 탔다. 이른 아침이라 기분이 그렇게 상쾌할 수가 없었다. 날씨마저 쾌청해서 더욱 그러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아침부터 울려나오는 음악이 그만 기분을 잡쳐놓고 말았다.

그래서 「여행 도중 불편하신 점이 있으시면 안내원에게 말씀해 주시죠.」라는 친절 한 안내에 힘입어 주문을 했다. <좀더 밝은 음악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이다. 그런데 그만 이게 무슨 버락(?)인가!

「괜찮지 않아요?」

.오히려 그만 머쓱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딱 대전을 출발한 참이라 퇴덕 인터웨이부터 전주에 올때까지는 줄곧 그 생각만 하게 되었다. 아침부터 좋은 목상거리를 얻게 된 것이다.

「괜찮지 않아요?」-〈글쎄요, 괜찮을까요?〉-「괜찮지 않아요?」-〈글쎄요, 괜찮을 까요?〉-「괜찮지...」-〈글쎄요...〉-

이른 아침부터 인지라, 더우기 월요일 인지라, “혼자 외로이 쓸쓸히 살아온...” “...마포는 서클퍼라”고 흐느적거리며 울려나오는 가락이나 노랫말보다는 좀더 경쾌한 음악을 들었으면 해서 부탁했는데, 이건 아주 사뭇 전주에 올때까지 똑같은 카세트 테이프를 두번씩이나 들려주는 것이다.

어떻게 된 셈인지 우리네 사회풍토에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다. 상점에 물건을 사러 가서 마음에 맞는 물건이 없어 다른 것을 찾으면 숫제 따지더 든다. 손님이 찾으시는 물건을 없지만 이 물건도 좋지않겠느냐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이 좋으니 그걸 그냥 사라는 것이다. 언제부터 그런 일방통행만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다른 음악이 없으니 그냥 들어주시죠.」하는 것과 「괜찮지 않아요?」 하는 말은 엄연히 다르다. 안내양의 양식을 타타기 보다는 그렇게 되어버린 우리네 사회풍토가 아쉬웁기만 하다.

대화가 없는 사회가 지닌 문제점은 너무나 크다. 자동차를 타 보아도 일방통행로는 불편하기가 그지 없다. 강요(?) 하기만 하는 일방통행은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문제다.

지금은 성년인데, 우리 주위에 그러한 일은 없는지? 「괜찮지 않아요?」 (갑)

요십이 (13) 金柄午



책은 바른 신앙을 기르는 양식이요, 매개체다.
심 바오로 서원

가톨릭 센타 프로그램 (관장 신부 박 진량, 총무 안 지은, 전화 ②3498)

- 10월16일(화) - 8시 성경교실
- 18일(목) - 8시 지성인 교리
- 19일(금) - 8시 레크레이션

(주최 ; 가톨릭 센타와 JOC)

외국 문화교실 ; English Conversation

매주 ; 화, 금 7시

독어 ; Heiderose ; 화, 목 6시

Morgentau ; 월, 수 6시

* 알 림 *

교회와 사회의 교량 역할을 하고 있는 가톨릭 센타는, 현재 진행중인 프로그램 외에, 바람직한 복지 문화 사회를 이룩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새 프로그램을 찾고 있오니,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분은 부디 저희를 돕 도와 주십시오.

* 호화 실내장식과 쾌적한 분위기*

프 랑 스 제과

* 임 금 님 찾집 *

전주 전신 전화국 앞

- 제과 ②5011 찾집 ②5013
- 김 원 준(야코버)

* 교형 여러분의 집 *

스 타 사 진 관

장 남 수(바오로)

- 오거리동, 동아여관 앞
- 전화 ② 6094

사 원 모 집

구비서류-이력서와 주민등록 초본
각 1통씩, 증명사진 1매
기 간-73. 9. 30~73. 10. 30
연 락 처-고사동 1가 417
(전화 ②4755)

전동 4가 31의2(전북지행 앞)
자세한 것은 직접 오시어 문의 하십시오.

- 주식회사성미 주리아 남전주 지점

전주 시내 6개 분당 소식

1. 제4지구 단합대회 (18일 <목> 밤 7시반, 가톨릭 센터)
전주 시내 6개 분당 신입 사도회 임원의 빠짐없는 참석 바람.
2. 꾸르실로 전국 울드레아 (10월 24일, 서울 서강대학교에서)
1,500원의 회비 (전국 회비, 서울 왕복 교통비 및 중식비 포함)로 꾸르실리스타 형제 여러분을 모시고자 하오니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전화 ②3998)
3. 제26차 국제 신용 협동조합의 날 기념 행사 (10월 27일 오후 7시, 가톨릭센터에서)
신용 협동조합의 혜택에 감사하며 선배 지도자의 명복을 비는 이날, 기념행사로 가요 경연대회 (개인전, 단체전)를 갖고자 하오니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쿠폰 신청 마감은 23일 까지입니다.
4. 전교 가톨릭 학생회 조직 (오늘 오후 2시, 가톨릭 센터)

(소) (식)

(중앙)

(전화 ②2651) 주임 신부 안복진 사도 회장 이복석 (전화 ②3074)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2. 성모회 월례회 (다음 주일 공식 미사후)
2. 교무금 자진 신입 (10월중예)
작년도에 비해 15% 인상되었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교무금 신입 누계 528,300원
지난 주일 봉헌금 35,944원, 감사합니다.

(노송동)

(전화 ②7032) 주임 신부 함승천 사도 회장 조해형

1. 신용조합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2. 부녀회 월례회 (다음 주일)
2. 애령회 옥외행사 (속리산) 오늘 접수 마감
① 참가범위 ; 사도회 임원, 부녀부, 합창단
② 회비 ; 4천원 (단 40명 이상 3천원) - 3회 분납
4. 인후동 구역장에 이 재열(요셉)씨
◆박성규 회장님께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 성미 3말 5되 (누계 72말 2되)
군인 주일 특별헌금 1,700원
지난 주일 봉헌금 15,275원, 감사합니다.

(덕진)

(전화 ②8082) 주임 신부 김종택 사도 회장 김종환

1. 사도회 임원 및 구역장 회의 (16일 <화> 저녁미사후)
준비 ① 부 장-연간 계획서
② 구역장-구역부회장 및 반장 명단
◎ 사도회 임원 명단 ◎
선교부장 박정자 (차장 이영남), 교육부장 김행곤 (차장 이병희), 재경부장 유제상 (차장 최완규), 사회부장 송정원 (차장 이철중), 부녀부장 임옥순 (차장 전영숙)
구역장 덕진동 정복수, 금암동 고봉주, 팔복동 김정규, 송천동 김인철,
공소회장 전당리 문제원 (부// 이강석), 미산리 박일봉 (부// 노남식), 문산촌 박동규 (부// 육중기), 내동리 정경옥 (부// 김동선)
□지난 주일 봉헌금 5,915원, 감사합니다.

(복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오기순 사도 회장 조성호

1. 교무금 자진 신입 (10월 말까지)
모든 상황을 감안 20%이상 인상 신입 바람.
2. 예비자 교리 (주일 공식 미사후, 수요일 저녁 미사후)
① 지난 1년간 몇사람이나 인도했나 반성합시다.
② 특히 청소년을 위한 선교활동에 힘써주세요.
3. 사제 양성 후원금은 제날짜에 불입합시다.
4. 학생회 추계 소풍 (다음 주일 오전 9시 출발)
① 장소 ; 성당→송광사
② 준비 ; 도시락과 교통비 (60원)
③ 인솔 ; 이광우 교육부장
④ 중 ; 고등학생들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지난 주일 성미 4말 4되 (누계 203말 6되)
군인 주일 특별 헌금 1,970원
지난 주일 봉헌금 10,955원, 감사합니다.

(서학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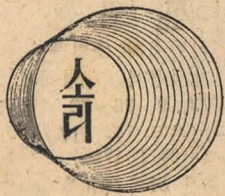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최상의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저녁 미사후)
2. 전교주일에 영세식 (다음 주일 오후 2시)
① 교리시간-16. 17. 19. 20일 밤 8시
② 유아영세-부모님들은 19일까지 총무처에 신고
◎ 사도회 임원 명단 ◎
선교부장 김한기 (차장 최병화, 이양환, 진판식)
교육부장 김진수 (차장 김 용, 이장열, 이영숙)
재경부장 박장춘 (차장 정시진, 유춘용, 김순애)
사회부장 조성희 (차장 김영애, 김준옥, 한부래)
부녀부장 장은수 (차장 한운순, 심급남, 박세시리아)
구역회장 박기흠, 장순옥
교문 유종선, 육낙철, 이등근, 강남준, 박춘덕, 손숙옥

(전동)

(전화 ②3222) 주임 신부 범석규 사도 회장 송재진

1. 신용조합 임시총회 (14일 오후 8시)
2. 교무금 신입 용지안 가져간 교우는 등 구별없이 16. 17. 18일중 적당한 날 오후 7시반까지 사제관에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교무금 신입서는 사무장께 제출 바람
4. 애령회 특별 헌금 있을 (매월 둘째 주일)
□군인 주일 특별 헌금 8,791원
지난 주일 봉헌금 30,525원, 감사합니다.



* 덕진 분당 관내 전당리 공소에서 추수 감사 미사가 봉헌 되었다. (10월11일)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자고 모두들 고백성사까지 끝내고 미사에 참여 했다 한다.
말로만 풍년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감사하며 즐거워할 줄 아는 산신

양인의 자세이리라.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테살로니카 전서 5 ; 16-18)
* 전주 여성 엠마누엘 셀 회원들은 수업료가 없어서 학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셀 회원(교2)을 위해 참으로 거룩한 운동을 벌였다. 교내에서 친구들에게 상분등 잡화를 팔고 있는 것이다.
노는일(?)에만 힘쓰는 일부 단체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가는 학생들이 있어 흐뭇하기만 하다.